



호원대 박준영 선수,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 동메달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지난 16~17일 2일간 장흥실내체육관서 열린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에 참가, 역사급(-100kg) 박준영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박준영(스포츠투드학과 1년) 선수는 32강 한림대, 16강 인제대, 8강 전주대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영준 감독은 "박준영 선수는 대학 입학 후 첫 입상이라 더 축하하는 마음"이라며 "여름이다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호원대 씨름부는 2018년 창단 후 각종 대회에 출전해 단체전 2위 1회, 3위 4회 개인전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6개를 획득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기자



남원 왕정동, 생활지원사 소통간담회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격려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장애 및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고독사 발생 등 응급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과 피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거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왕정동을 담당하는 10여 명의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는 150여 명의 독거노인을 전담, 안전과 기초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기타서비스 연계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개최

남원시 소선사 도통동장은 지난 1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새마을지도자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 및 상호교류를 위한 상례례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0여년간 도통동 새마을지도자회를 이끌어 오던 박성규 회장의 이임사와 김희만 회원을 신규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희만 신임 회장은 "이웃간의 따뜻한 교류를 품소 실천하고 있는 도통동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더 나누고 더 따뜻한 도통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영면 새마을남녀협, 주거환경개선 봉사

남원 이영면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윤형식, 부녀회장 김영인)는 16일, 인풍리 매산마을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이영면 새마을남녀협의회의 공동기금 마련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협의회 20명의 회원은 이날 아침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가 핀 벽지와 장판을 제거하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은 "생활이 어려워 도배와 장판 교체가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깨끗한 집에 살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에 울린 여성농민의 목소리

제25회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성황'

순창군에서 개최된 '2024 제25회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가 18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순창군 여성농민회(회장 최은숙)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순창을 비롯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임실, 고창 등 전북지역 여성 농민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 농민들의 권익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 농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는 여성농민 정책의 발전 방향과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 농업 정책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 친화적 농기계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제2부 개회식에서는 최은숙 순창군 여성농민회장의 환영사와 최영일 순창군수의 축사가 있었으며, 각 시군 대표들의 기발 입장식은 행사의 화려했음을 더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제1부 '대동한마당'에서는 여성 농민들이 그동안의 노고를 달라고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놀이행사와 초청가수 공연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최한 최은숙 순창군 여성농민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농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성 농민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성 진안군수, 사회복지대학 특강 진행

전주성 진안군수는 18일 산림조합 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대학 강사로 초빙되어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새롭게 변화하는 계획도시, 골고루 잘사는 경제 육성, 누구나 누리는 복지생활,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가고 싶고 찾고 싶은 휴양관광,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등 6가지 운영지표를 기준으로 민선8기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정책 방향, 진안군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과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성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은 사회복지대학은 4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진안군민들의 사회복지개념 이해와 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제시, 2024년 '농촌 왕진버스' 본격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촌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해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한방 의료지원, 구강검진 및 검안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4회에 걸쳐 공덕면, 금산면 등 총 6개 읍면 8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등 8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의료 관계자 20여 명은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공덕두루누리 활력센터 일원에서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검안 및 돋보기 처방, 한방치료 등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대기시간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고고장구, 색소폰 기타 공연과 양말목, 보자기 공예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공덕 뽕마을에서 라면, 팝콘 과일주스를 제공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의료 혜택이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농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2024년 평생교육협의회 성황리 개최

정읍시는 지난 1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업무 현황보고와 학습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평생교육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전반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배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57가지 목표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개 목표는 △평생학습조직의 체계화 △보편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원체제 구축 △고등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 △디지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이를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배우면서 성장하는 정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순창군, '농촌 왕진버스'로 군민이 행복한 복지 펼쳐

순창군이 18일 동계초등학교 강당에서 '농촌 왕진버스' 2회차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김영일 본부장,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이병희 지부장, 동계농협 양준섭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왕진버스는 동계면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양방진료(대자간병원), 구강검사 및 교육(아이와이오), 검안·돋보기 지원(대비치 수송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병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은 "왕진버스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왕진버스를 통해 농업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촌 주민을 위한 왕진버스 사업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안승주)는 지난 17일, 뽕뽕어린이집 119청소년단원 및 원생 27명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어린이에게 소방관이 하는 일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육에서는 어린이들이 물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체험, 방수체험 및 구급차 펌프차 탑승체험, 소방관 복장을 입어보며 소방관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보는 시간 등과 소방차와 구조 장비를 직접 살펴보고 소방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나영철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통해 어린이가 소방관이 하는 일에 관심과 꿈을 갖고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 소통·화합 한마당 개최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김학진)가 주관하는 제22회 소통과 화합 한마당이 18일 진안 전통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1부 기념식은 허태복 도 협회장을 비롯해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에서는 축하공연, 장기기증, 경품추첨 등이 열렸다.

김학진 회장은 "행사를 거듭해 갈수록 회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진안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차별 없는 진안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펼쳐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국립공원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원마을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마을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는 2021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다습동지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국립공원 마을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는 덕유산사무소와 다습동지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배재대학교 등 건축학과 학생들 17명과 전문자원봉사자 3명 등 총 20명이 재능기부를 통해 5일 동안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은 덕유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구산·발한·마집마을에 거주하는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도배·장판, 온돌 및 창호 설치, 단열재 시공, 미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김태현 덕유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덕유산국립공원에 방문하여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 주신 다습동지복지재단과 자원봉사자 및 식사 준비를 해주신 마을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